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6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25일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위기의 민주당 출구 안보인다

지방선거 일주일 앞 … 지지율 하락에 수도권 사수 목표 '빨간불'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 대패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민심의 지지를 견인할만한 정치적 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도 막장 공천의 후폭풍이 강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의 시나리오마저 나돌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시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말 면목이 없다. 많이 잘못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며 "민주당 후보들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의 이날 눈물의 기자회견은 그만큼 민주당이 절박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당장 광역단체장 8곳 사수라는 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수도권에서 전패하고 광주·전남·전북 호남 3곳과 제주, 세종 등 5곳 정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기대했던 '이재명 효과'가 좀처럼 체감되지 않으면서 위기감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지방선거에 시너지 효과보다 오히려 '악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사람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 공천'도 실종되면서 대선 패배에도 달라진 모습이 없다는 민심의 평가마저 겹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역전을 허용한 것은 물론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격전지 막판 판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선 패배의 원인과 철저한 반성 없이 급조된 지도부는 내부적 역량 결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호남에서의 막장 공천은 수도권의 출향 호남 민심 결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내홍이 폭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승리를 위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노갑 전고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각각 유세단장으로 투입하는 등 민주당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인사들을 총동원,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당내 일각에서는 선거 막판, 민주당의 위기론에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느냐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 '4년 무한책임론'을 언급하고 싶다"며 "저희를 신뢰하고 지방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다른 생각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응하는 '맞불' 성격인 동시에, 유리한 지방선거 전망에 당내 느슨해진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라면 국민의힘이 수도권 석권 등 10곳 이상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역대급 성적을 내는 것은 물론 호남에서도 기대 이상의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시원 합니다" 광주·전남지역에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시작된 24일, 광주 서구 버스종합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 쿨링포그가 작동돼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당정,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 폭락 쇼크 '비상대응'

"투자자 보호 청문회 개최"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분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서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정을 서둘러주시고"라고 금융당국에 당부했다.

아울러 "(거래소에서도)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많은 국민이 관여됐다면 자기 투자 책임원칙만 주장해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루나 등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국내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수사기관이 이들과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루나·테라 사태의 경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 정해진 상황은 아니다.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경찰에서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두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갈라진 민심 ▶3면
손흥민과 함께 온 '골든부트' ▶18면
임의진 광주 속살 순례-도시 어부 ▶22면

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김진표 의원

민주당 몫 부의장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5선 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이 출마해 4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경선에서 김 의원은 총 166표 가운데 절반을 넘는 89표를 얻어 우 의원(57표)을 앞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할 말을 하는 의장으로서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가운데서 실질적인 협치가 가능하다. 국회를 거수기로 생각해서는 협치가 제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4선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5선 변재일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했다. 김영주 의원은 농구선수를 하다가 노동운동에 투신해 정계로 진출한 이력의 소유자로 정세균계로 분류되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김영주 의원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 간 소통의 메신저가 돼 대화와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박병석 현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